



가창오리떼 군무 장관

성탄절인 지난 25일 저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수십만마리가 무리를 지어 아름다운 군무를 연출했다.

/이원철 기자



동림지 가창오리의 비상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휴로 이어진 지난 25일, 고창 동림지에는 2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창오리가 모여 장관을 이룬 가운데 이날 오후 수많은 가창오리가 수면을 박차며 비상하고 있다. 이날 가창오리의 군무를 촬영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찾았으나 기대만큼의 화려한 군무를 펼쳐주지 않아 아쉬워하며 귀가해야 했다.

/사진=김종채기자(haram7895@)

고창 동림저수지 가창오리떼 '비상'



(고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8일 오후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림저수지에서 20여만 마리로 추정되는 가창오리떼가 힘차게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2015. 12. 28

doo@yna.co.kr

(끝)

고창 동림저수지 가창오리



(고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8일 오후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림저수지에서 20여만 마리로 추정되는 가창오리떼가 힘차게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2015. 12. 28

doo@yna.co.kr

(끝)